

[바둑]

국내 첫 '바둑백서' 나왔다

'바둑의 어제와 오늘' 등 바둑계 현황·동향 다뤄

국내 첫 바둑백서(사진)가 나왔다. 한국기원은 최근 '2009 대한민국 바둑백서'를 발간했다. 백서는 크게 세 단락으로 꾸며졌다. 1부는 한국바둑의 어제와 오늘, 2부 바둑의 정체성과 산업, 3부 세계 속의 바둑으로 나눠 포괄적인 바둑계 현황과 동향을 담았다.

1부는 고대에서 근대까지의 바둑 역사와 이후 세계바둑계를 주도하고 있는 한국바둑의 발자취를 한국기원의 연혁과 더불어 사진으로 살펴보았다. 2부는 교육으로서의 바둑과 학문으로서의 바둑, 체육으로서의 바둑, 산업으로서의 바둑으로 세분해 여러 방면에서 다양화하고 있는 바둑의 위상을 조명했다.

또 3부는 일본과 중국, 대만 등 주변 국가들의 바둑 현황과 역사를 소개했고 북한바둑과 미국, 유럽 등 제3세계 바둑 불모지의 바둑도 곁들였다. 부록으로는 세계 각국의 바둑인구

현황 조사와 인구를 도표를 통해 정리했고, 한국기원 바둑 규정과 바둑 용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비교 표를 실었다.

이 백서는 비매품이며, 지난 8일 열린 '2008바둑대상' 시상식에서 기념품으로 1차 배포했고, 이후 각종 바둑행사나 대회에 홍보용으로 쓸 예정이다.

한국기원 관계자는 "바둑계의 어제와 오늘을 조명하고 세계 바둑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한국 바둑의 발자취를 남기는 중요한 작업이다"고 평가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최철한〉 〈박영훈〉 〈원성진〉 〈조혜연〉

“반상의 제왕, 우리가 접수”

'소띠 해' 85년생 동갑내기 프로기사

최철한·박영훈·원성진 등 출사표

남자 기사 킬러 조혜연도 여자 9단 꿈 꾀

기축년(己丑年) 새해 소띠 기사들이 출사표를 던졌다. 대표작인 소띠 기사들은 1985년 생인 박영훈·원성진·최철한 9단이 있다. 이들은 이세돌·이창호 9단의 양강 체제에 도전장을 내밀 수 있는 기력을 갖겠다는 평을 받고 있는 기사들이다.

현재 한국기원 소속 9단은 모두 49명인데 이들 중 박영훈 등보다 어린 기사는 강동윤·송태곤 등 2명뿐이다. 사실상 이들 '숨어지 산총사'가 세대교체 주역인 셈이다.

지난해 이들 성적은 썩 신통치

않았지만 후반기 들어 서서히 떠오르며 기축년 돌풍을 예고하고 있다.

85년 소띠 중 가장 먼저 입신의 경지에 오른 최철한은 올해 도약이 가장 기대된다. 그는 지난 2004년 국수전에서 이창호를 꺾고 우승하며, 해설처럼 등장했다.

2005년에는 응씨배 결승까지 올라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 지난해에도 그는 51승16패(76%)로 다승 부문 6위를 기록했고 다시 응씨배 결승에 올라 올해 3월 이창호 9단과 정상을 놓고 맞붙는다.

동갑내기 소띠 중 랭킹(5위)이

가장 좋은 박영훈도 지난해 말부터 상승세를 타고 있다. GS칼텍스배 프로기전에서 원성진을 3대 0으로 일축하고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또 원성진은 GS칼텍스배에서 박영훈에게 일방적으로 패해 의기소침해 상태지만 지난해 박카스배 천원전 타이틀을 따내는 등 재기를 노리고 있다.

85년생 소띠 바둑기사 중에는 또 '남자 기사 킬러'로 통하는 조혜연 8단도 있다. 지난해 남자 기사들에게 유독 강했던 조혜연은 루이니아웨이, 박지은에 이어 세 번째 한국 여자 9단을 꿈꾸고 있다. 조혜연은 지난해 총 42번 대국에서 23승을 거둬 승률이 50%를 넘는다. 다승 부문 39위로 뛰어난 기량을 뽐냈다.

이 밖에 이재호 6단, 김진우 4단, 김대웅 3단, 이다혜 3단, 김환수 2단, 김동희 2단, 백지희 초단 등이 떠오르는 85년생 소띠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대만 바둑계 양분 갈등 예고

중화프로바둑협회 창립

대만 바둑이 대만기원과 중화프로바둑협회로 양분돼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대만 프로바둑협회인 중화프로바둑협회가 최근 공식 창립식을 갖고, 일본 사업가인 가토 준이치를 초대 이사장으로 뽑았다. 중화프로바둑협회는 지난해 2월 대만기원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에 서명을 거부한 저우권선 9단 등 기사들이 만든 조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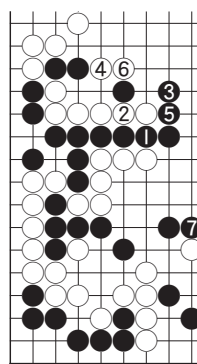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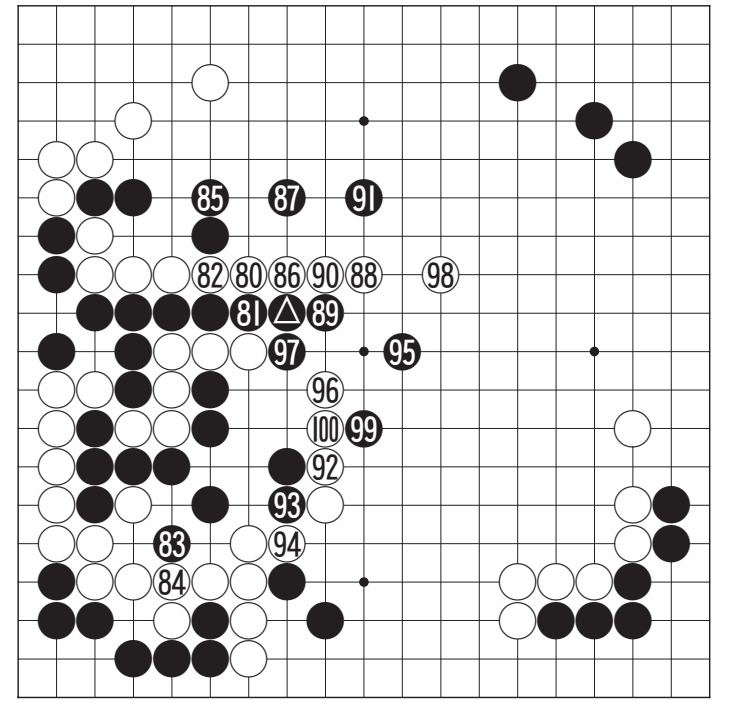
이날 창립식에는 약 30여 명의 대만 주요 바둑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프로기사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는 한편 바둑계와 대화를 이끌어가며 장기적으로 신에 기사들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 점차 프로기사를 선발하고, 기전을 개최할 것으로 알려져 향후 대만기원과의 충돌도 예상된다.

한편 대만기원은 "대만기원의 정책을 무조건 따르겠다"는 내용의 서명을 거부한 저우권선 9단 등 기사들이 만든 조직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제2회
김인 國手배
국제 시니어 바둑대회

'쉬운 길을 마다하고'
최강부 결승 6보 (80~100)
白 정인규 6단 黑 신영철 6단



〈참고도〉

정인규 6단으로는 청천벽력과 같은 참담한 순간이다.

정인규 6단은 사색이 된 표정으로 장고를 거듭하더니 백 60으로 들여다 보는 임기응변의 한 수를 들고 나온다.

이 수는 백 6점을 죽이더라도 위쪽의 잡혀있던 백 4점이라도 살려

보자는 공여지책이다. 이때 흑은 '참고도'의 흑 1로 있고 3으로 장문을 써우면 간단하고 이것이 최선으로 보인다. 그런 다음 7로 밀어가면 쉽게 우세를 확립할 수 있었다.

그런데 자신감이 넘친 신영철 6단은 흑 85로 두어 흑 두점도 줄 수 없다고 외쳐댄다. 이것이 또 국면을 복잡하게 만든다. 복잡해지면 백에게도 그만큼 기회가 많아지는 것이다.

정인규 6단은 은근히 역습의 기회를 노리며 백 86부터 88로 뛰어 나가고 백 92로 밀어 바깥 중에도 바변을 확장하는 등 균형을 맞추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백 100까지 어느덧 알 수 없는 형세로 변해가고 있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박영훈 맥심배 2연패 눈앞 원성진 꺾고 결승행

박영훈 9단이 제10기 맥심커피배 입신최강전 2연패를 눈앞에 뒀다. 박영훈은 지난 7일 한국기원 바둑 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이 대회 준결승에서 원성진 9단을 263수 끝에 불계로 따돌리며 가장 먼저 결승에 올랐다. 이로써 박영훈은 이창호 9단과 최철한 9단의 승자와 결승 3번기를 치른다.

이날 경기에서 흑을 쥔 박영훈은 초반 한번 전투에서 백의 영토를 쏙

대밭으로 만들면서 실리로 멀찍이 달아났다. 평소 두터움을 선호하는 원성진은 실리를 내준 뒤 중앙 일대의 흑돌을 가두려 했으나 공격에 실패했다. 이후 원성진은 좌변에서 패를 만들어 역전을 노렸지만 승부를 뒤집는데는 실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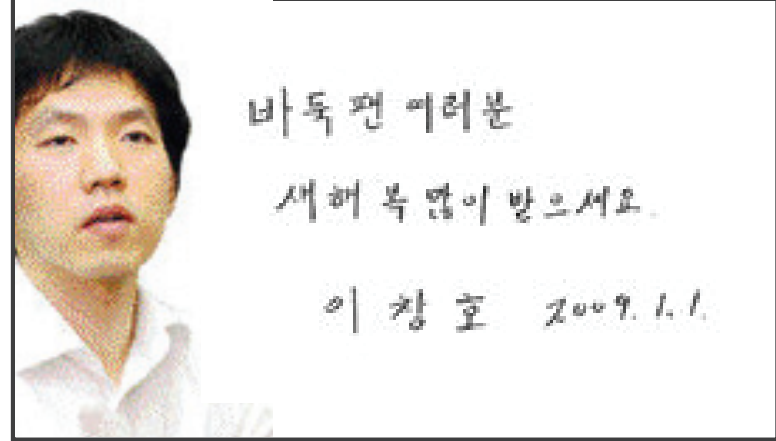
동갑내기 소띠 기사인 박영훈과 원성진은 GS칼텍스배 도전기에 이어 맥심커피배 준결승까지 한 달 간격을 두고 무려 4차례나 격돌했다. GS칼

텍스배 패배를 설욕하려한 원성진은 또다시 박영훈에게 발목이 붙들려 패배의 쓴 잔을 연거푸 들이켰다. 상대전적 역시 박영훈이 9승4패로 앞서가게 됐다.

남은 준결승전인 이창호와 최철한의 대결은 오는 14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 대회 제한시간은 각 10분, 4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지는 속기전이며 우승상금은 2천 5백만원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돌부처' 이창호, 바둑팬들에 신년인사



구리, 조선족 기사 박문요 꺾고 먼저 1승

구리 9단이 제4회 도요타배 세계바둑선수권대회 결승에서 선취점을 따냈다. 구리는 지난 6일 중국기원에서 열린 이 대회 결승 3번기 1국에서 중국 랭킹 4위인 박문요 5단을 맞아 불계승을 거뒀다.

조선족 기사 박문요는 초반 좌변과 상변에 큰 세력을 형성했지만, 우하귀를 중심으로 모양을 갖춘 구리의 세력을 누르지는 못했다.

지난해 8월 구리와 박문요는 각각

장위 9단과 씨헤려 7단을 꺾고 결승전에 진출했다.

일본기원이 주최하는 이 대회 제한 시간은 3시간에 10분 전부터 초읽기를 시작한다. 초읽기는 60초 10회. 우승상금은 3천만엔(한화 약 4억1천 800만원). 준우승 1천만엔, 4강 상금이 각각 500만엔, 8강 진출자 150만엔, 16강 진출자 50만엔, 32강 진출자 30만엔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GS칼텍스배 2009 입신최강전

최철한·박영훈·원성진 등 출사표

남자 기사 킬러 조혜연도 여자 9단 꿈 꾀

달강할 자식감!

뉴먼남성의원

02)483-7586

큰 놀이

화촌의 "꿈" 파워마키

EATING

전통 침·뜸

“알기쉬운 침구학세미나”

1월 9일(금) 오후 2시

1544-5359 / 236-3516

CH 중국문화원